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 나타난 고대사 사료검토

- 普德, 元曉, 眞表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

조 법 중*

- I. 머리말
II. 이규보의 전주권기록에 나타난 고대사 사료
III. 선사, 고대사 관련 기록분석
I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의 대표적 문인 이규보¹⁾는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고려 최대의 문인으로 인식되는 것과 함께 「東明王篇」을 통해 한국고대사 특히, 고구려의 역사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舊三國史』의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규보는 『三國史記』, 『三國遺事』에서 전하

* 우석대 사회교육(역사)과 교수

주요논저 : 2009, 「한국 고종세 백두산신앙과 만주명칭의 기원」 『한국사 연구』 147 ; 2008, 「高仙芝와 고구려종이 纈紙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보』 33; 2007, 「고구려 초기도읍과 비류국성연구」 『백산학보』 77; 2006, 『고조선 고구려사연구』, 신서원.

1) 1168(의종 22)~1241(고종 28)

는 한국 고대 역사상과는 다른 원형적 역사상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²⁾

이러한 우리 역사에 대한 이규보의 관심은 특히, 자신이 관직을 제수받은 첫 부임지역인 쏴州 및 현재의 전라북도 지역에 관한 기록인 「南行月日記」를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고려시대적 관점과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³⁾ 즉, 이규보는 22세에 司馬試에 장원 급제한 후 10여 년 동안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다가 32세 되던 1199년(신종2) 6월에 첫 부임지인 전주에 쏴州牧 司祿兼書記로 보임되었다. 전주 및 전주관할지역을 순력하고 기록한 「南行月日記」는 이규보가 전주목에 부임한 9월부터 파직되어 임지를 떠난 1200년 12월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1201년 3월에 만든 작품이다.⁴⁾ 「南行月日記」는 전주목 주변지역에 대한 기행수필적 성격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⁵⁾ 이규보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과 역사적 사건 및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 기록을 남김으로써 한국고대사 사료로서의 가

2) 李佑成, 1982, 「高麗 武臣政權과 李奎報」 『韓國의 歷史像』上, 創批新書 41 ; 卓奉心, 1984, 「『東明王篇』에 나타난 李奎報의 歷史意識」 『韓國史研究』 44, 한국사연구회 ; 金哲竣, 1985, 「李奎報 「東明王篇」의 史學史的 考察; 舊三國史記 資料의 分析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46·47합집 ; 朴宗基, 1997, 「儒敎史家 李奎報의 歷史學」 『韓國史學史研究』,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3) 동국이상국집 年譜

본고에서 활용한 이규보의 작품자료는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에서 제공한 번역문 및 원문자료를 필자가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였음.

4) 동국이상국집 年譜

기미년 승안 4년(1199, 신종2) 6월 공을 쏴州牧司錄으로 보임하여 書記를 겸임하도록 하므로 가을 9월에 전주로 부임했는데, 이해에 지은 古詩와 律詩가 무려 15, 16편이나 되었다.

경신년 승안 5년(1200, 신종3) 공의 나이 33세.

이 해에 지은 시는 30편이 훨씬 넘었다.

겨울 12월에 파직을 당해 전주를 떠나게 되었다.

5) 경일남, 「『南行月日記』의 수필적 특성」 『한국언어문학』 29,

치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된다. 특히, 이규보는 평소에 傳聞으로 들은 특이한 곳이나 불교승려관련 지역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소회를 남겼다. 이 가운데 全州의 景福寺와 연결된 高句麗승려 普德, 邊山의 新羅승려 元曉와 蛇福,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이지만 百濟遺民으로 인식되었던 眞表관련 기록을 남겨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승려들에 대한 사료를 제공하고 있어 관련 기록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와 현재의 전라북도권 지역에 대한 詩文등의 작품에 나타난 한국고대사 관련 유적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이들 유적에 대한 다른 기록과의 대조를 통해 새로운 사료 발굴과 고려시대적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이규보의 전주권기록에 나타난 고대사 사료

1. 「南行月日記」에 나타난 고대사 사료

「南行月日記」는 앞서 이규보의 첫 보임지인 全州牧 관할지역에 대한 일종의 巡歷日記로서 기미년(1199, 신종2) 6월에서 경신년(1200) 12월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신유년(1201) 3월에 만든 작품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전주를 필두로 주변지역에 대해 다른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점이다. 즉, 「南行月日記」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외직생활 중 民政을 살피거나 伐木을 감독하거나 冤獄을 감찰하고, 漁船을 조사하는 등의 공무를 계기로 여행에서 얻은 소감과 견문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규보는 앞선 선대에 이뤄진 사건관련 지역이나 전문으로 전해지는 특정지역을 탐방하여 한국고대사 관련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었다.

고려시대全州牧의 관할내용을 보면 屬郡인 金馬郡과 縣이 11개로 서 명칭을 보면 朗山縣, 沃野縣, 鎭安縣, 紆州縣, 高山縣, 雲梯縣, 馬靈縣, 礪良縣, 利城縣, 伊城縣, 咸悅縣⁶⁾ 등이다. 이규보는 크게 몇 차례로 나누어 이들 지역을 순방하였는데 「南行月日記」에 수록된 이규보의 탐방일정과 대상지역을 보면 이들 지역과 함께 전주와 인접한 남원지역 등을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南行月日記」에 나타난 순력지역 >

- 기미년(1199)
 - 10월 8일⁷⁾ 全州 景福寺
- 기미년(1199)
 - 11월 馬靈縣-鎭安縣-雲梯縣-高山縣-禮陽(礪良縣)-朗山縣-金馬郡
 - 12월, 邊山
- 경신년(1200)
 - 1월 邊山-保安
 - 윤2월 進禮縣-南原府
 - 3월 萬頃-臨陂-沃溝-長沙-茂松
 - 8월 邊山 蘇來寺, 元曉房, 不思議方丈

그런데 이들 지역을 방문한 이규보는 기본적인 공무활동과 함께 평소 자신이 관심있는 지역이나 특정 사건과 관련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한국고대사 관련 역사사건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록의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즉, 이들 기록은 고려시기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으로 삼국 및 통일신라시기의 기록이 적은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료이다. 특히, 관련 기록이 대부분 『三國遺事』 기록과 대응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

이규보가 관심을 갖고 방문한 「南行月日記」에 수록된 지역 및 내용

6) 『高麗史』 57 志11 地理2 全羅道 全州牧.

7) 『東國李相國全集』 10, 古律詩. 시월 팔일 景福寺를 유람하고 ...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행월일기 방문지역

시기	지역	지역성격, 연원	관련유적
10월	全州	<p>연혁: 完山이라고도 일컫는데 옛날 百濟國이다.</p> <p>지역성격: 인물이 번창하고 가옥이 즐비하여 故國風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질박하지 않고 아전들은 모두 점잖은 士人과 같아, 행동거지의 신중함이 볼 만하였다. 中子山이란 산이 가장 울창하니, 그 고을에서는 제일 큰 巔山이다.</p> <p>소위 完山이란 산은 나지막한 한 봉우리에 불과할 뿐인데, 한 고을이 이로써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p>	전주: 경복사 보덕의 飛來方丈
11월	馬靈 巔安	山谷間的 옛고을 백성들이 질박하고 미개하여 얼굴은 원숭이와 같고, 杯盤이나 음식에는 오랑캐의 풍속이 있으며, 꾸짖거나 나무라면 형상이 마치 놀란 사슴과 같아서 달아날 것만 같았다.	
	雲梯	산을 따라 감돌아 가서 雲梯에 이르렀다. 운제에서 高山에 이르기까지는 높은 봉우리와 고개가 만길이나 솟고 길이 매우 좁으므로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	
	高山	다른 군에 비하여 질이 낮지 않았다.	
	禮陽 朗山		
	金馬郡		금마: 지석묘 '支石'이란 것을

			구경하였다. 지식이란 것은 세속에서 전하기를, 옛날 聖인이 고여놓은 것이라 하는데, 과연 奇迹으로서 이상한 것이 있었다.
	伊城	民戶가 凋殘하고 籬落이 蕭條하여 客館도 草家요, 아전이라고 와 뵈는 자는 4~5인에 불과하였으니, 보기에 측은하고 서글웠다.	
12월	邊山	邊山은 우리나라의 材木倉	
1월	邊山-保安	群山島·狷島·鳩島	
윤2월	進禮	산이 매우 높고 들어갈수록 점점 깊숙하여 마치 만나라의 별경을 밟는 듯하여, 마음이 울적하고 무묘하였다.	
	남원부	남원은 옛날의 帶方國이다.	
3월	萬頃臨陂沃溝	殘弊한 작은 고을	兜率寺 彌勒像 禪雲寺
	長沙		
	茂松		
8월	邊山		蘇來寺, 元曉房, 蛇包聖人 不思議方丈 眞表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南行月日記』에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규보가 寺刹을 방문하여 앞 시기부터 전승된 관련 기록 등을 소개하고 직접 탐방한 내용이다. 특히, 全州 景福寺의 普德과 관

런된 飛來方丈과 邊山 元曉房 및 眞表의 不思議方丈은 관련 기록의 회소성에서 주목되며 특이한 내용으로는 금마의 支石에 대한 언급과 禪雲寺 근처의 彌勒像에 대한 언급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통일신라시기 3명의 승려들의 행적과 관련 유적 탐방 내용이다. 즉,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서는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된 시기이후에 존재한 승려들 가운데 이 지역과 관련된 승려들을 특기하고 있다. 먼저 첫째, 전주 경복사의 高句麗 승려 普德의 飛來方丈에 대한 기록과 둘째, 新羅의 대표적 승려인 元曉와 蛇福이 관련된 邊山の 元曉房에 대한 기록, 셋째, 통일신라 승려이기는 하지만 百濟계통이 강조되는 眞表⁸⁾의 不思議方丈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전주권역에 존재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승려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관련유적이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비록 이규보의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南行月日記』에 나타난 이규보의 방문지역들은 결과적으로 三國의 高僧들 관련 유적을 동시에 담아내는 고대사관련 기록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규보가 金馬를 방문했을 때 가장 큰 탐이 남아있었을 彌勒寺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眞表와 관련된 全州 母岳山 金山寺 및 金山寺 인근의 新羅 華嚴十刹 중의 하나로 언급되는 母山(母岳山)의 國神寺⁹⁾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점은 이규보의 관심사

8) 진표를 소개한 당고승전의 내용을 전하는 『宋高僧傳』에서 진표는 百濟國 승려로 소개되고 있어 진표의 백제적 속성이 당시에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같이 수록되었다고 파악된다.

『宋高僧傳』『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

9) 김상현, 1991,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신라의 義湘이 당나라에서 수행하고 돌아와 세운 사찰로서 국가적인 지원에 의해 규모등이 방대하였다.

崔致遠의 『法藏和尚傳』과 一然의 『三國遺事』에 절 이름이 나온다. 『법장 화상전』에 의하면 태백산 浮石寺, 전주 무산 國信寺, 가야산 海印寺, 비슬산 玉泉寺, 금정산 梵魚寺, 지리산 華嚴寺, 팔공산 美理寺, 계룡산 甲寺,

항이 조금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규보는 金馬의 支石을 탐방하고 설명한 표현에서 ‘聖人の 奇跡’으로 이를 표현하였듯이 고려시대에 聖賢으로 추앙받았던 승려들과 관련된 奇跡을 중심으로 현장답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飛來方丈, 不思議方丈, 元曉房이 모두 신이한 사건이나 현장적 특이성을 갖는 곳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사찰의 위용보다는 신비한 공간들을 주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미 이규보가 20대에 東明王篇 序에서 밝힌 것처럼 초자연적인 사실이 허탄한 것이 아니라 신성함을 반영한 것이라는 인식¹⁰⁾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해된다.

2. 이규보의 詩文 등에 나타난 고대사 사료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와 함께 전주에 머무른 약 2년 여의 기간 동안 이규보는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관련 문학작품을 남기고 있다. 이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제목	내용	근거
全州 城隍堂	夢驗記	성황당 ‘왕’과의 꿈속대화	『東國李相國集』 25, 記 夢驗記
全州客舍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全州客舍에서 밤에 자다가 편협한 회포를 쓰다
全州 孝子里	全州 孝子里 碑石	전주 효자마을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全州에서 孝子里에 세운 비석에 제하다

웅주 가야협 普願寺, 삼각산 靑潭寺 10개 사찰을 말한다.

- 10) 『동국이상국집』 권3, 古律詩 東明王篇 并序. “得舊三國史 見東明王本紀 其神異之迹 踰世之所說者 然亦初不能信之 意以爲鬼幻 及三復耽味 漸涉其源 非幻也 乃聖也 非鬼也 乃神也.”

全州景福寺, 飛來方丈			『東國李相國集』 10, 古律詩 시월 팔일 景福寺를 유람 하고 이튿날 飛來方丈에 찾아가 普德聖人の 影幀을 처음 보았다. 현판 위에 宗 聆首座 內翰 李仁老의 시 가 있었는데 그 절의 주지 가 시를 청해 그 끝에 씌
全州	十二國史 重刻		『東國李相國集』 21, 序 『十二國史』를 重刻한 데 대한 서
全州	東坡文集 重刻	1236 고종23	『東國李相國集』 21, 跋 全州牧에서 새로 증각한 東坡文集 끝에 발함
全州	全州城隍 致告文	소찬제물설명	『東國李相國集』 37, 哀詞· 祭文 全州에서 城隍에 제사 지 내는 致告文
全州	全州龍王 祭文	天澤은 龍王 이 주도	『東國李相國集』 37, 哀詞· 祭文 全州에서 龍王에게 비를 비는 제문
全州	馬浦大王 祭文		『東國李相國集』 37, 哀詞· 祭文 전주에서 保安縣 馬浦大王 에게 거듭 고하는 제문
參禮驛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경신년 오월에 賀赦表를 받 들고 서울로 갈 때 參禮驛 에서 말을 갈아타고 갔다
馬靈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십일월 이십일에 馬靈客舍 에서 유숙하였는데 重臺堂 頭가 술을 가지고 왔으므 로 시를 지어 주다

郎山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郎山 고을에서 창고를 조 사하고 짓다
扶寧郡 邊山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십이월 斫木하러 가면서 처 음으로 扶寧郡 邊山에 갔다 가 그때 馬上에서 짓다
南原 葵樹驛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南原으로 갈 때 葵樹驛에 서 樓上의 벽에 붙은 시를 차운하다
南原 源水寺 引月驛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남원으로부터 源水寺에 와 서 하룻밤 자고 다시 남원으 로 갈 때 引月驛에 들어가 벽에 붙은 시를 차운하다
鷲谷驛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6월 8일에 鷲谷驛에서 天 院 劉冲祿를 만나 술을 조 금 마시고 小畜詩의 운자 를 인용하여 각각 짓다
淳昌 葛覃驛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淳昌郡으로부터 전주로 향 할 때 葛覃驛에 들어가
邊山 元曉房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팔월 이십일에 楞迦山 元 曉房에 제하다
邊山 不思議 方丈			『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또 不思議方丈에 제하다 불사의 방장은 옛날 眞表 律師가 살면서 修真한 곳이 고 미륵과 지장地藏이 顯身 하여 수계(授戒)한 곳이다. 나무 사다리가 백 척이나

			<p>솟아있고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면 바로 방장에 이르게 되는데 그 아래는 헤일 수 없는 계곡이다. 철사로 그 집을 이끌어 바위에 못질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바다 용이 만든 것이라 한다.</p>
高阜 金溝			<p>『東國李相國集』 9, 古律詩 고阜로부터 밤에 金溝에 들어가 벽 위에 쓰다</p>
扶寧 蝟島			<p>『東國李相國集』 17, 古律詩 경인년 11월 21일 蝟島로 귀양가는 길에 扶寧을 지나다가</p>
感佛寺			<p>『東國李相國集』 17, 古律詩 感佛寺에서 놀다가 住持 老比丘에게 줌</p>
妙巖寺 位金巖			<p>『東國李相國集』 17, 古律詩 妙巖寺에 놀면서 洪書記가 位金巖에 제한 板上韻에 차 운함 신라 장군 位金이 이 바위에 와서 돌성을 쌓아 적을 막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남아 있으므로 위금암이라 부른다.</p>
蝟島			<p>『東國李相國集』 17, 古律詩 12월 26일 蝟島로 들어가려고 배를 띄움</p>

상기 시문표의 내용을 앞서 정리한 「南行月日記」와 비교해 보면 「南行月日記」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당수 지역 즉, 삼례, 오수, 인월, 앵곡, 갈담, 고부, 금구, 위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南行月日記」에서 언급된 전주 주변의 나머지 지역을 이규보가 거의 망라해서 다

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 기록 가운데 앞서 3명의 승려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고려 이전시기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邊山지역의 妙巖寺와 位金巖에 대한 기록 가운데 “新羅 將軍 位金이 이마위에 와서 石城을 쌓아 적을 막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남아 있으므로 位金巖이라 부른다.”는 부분은 이 지역이 고려 이전시기에 전쟁 현장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란 점에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이 문제는 位金巖山城이 百濟復興軍의 마지막 거점인 周留城으로 파악되는 사실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위금산성에 대한 역사적 성격 이해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록이다.¹¹⁾

이규보의 詩文 등에 나오는 이들 기록은 앞서 분석한 「南行月日記」를 보완하면서 특히 普德의 影幀 관련기록, 眞表의 不思議方丈을 海龍과 관련지어 설명한 기록 등, 다른 기록에서는 전하지 않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기록을 앞서 「南行月日記」와 연결지어 장을 달리하여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III. 선사, 고대사 관련 기록분석

1. 금마의 支石墓관련 기록

이규보의 기록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기록 중 하나는 우리나라 전근대 역사기록 가운데 금마지역을 지나며 한국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무덤인 支石墓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다.¹²⁾

앞서 「南行月日記」의 내용을 보면 이규보는 고려 神宗 3년(1200) 11

11) 이 문제는 백제 주류성문제를 논의할 별고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2) 이선복, 1998, 『고고학개론』이론과 실천, 223쪽.

월 말에 금마군에 이르러 일부러 支石을 관찰하기 위해 金馬로 향하던 중 길을 우회하여 支石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다음날 금마군으로 향하려 할 때, 이른바 ‘支石’을 찾아 구경했다. 支石이란 것은 세속에서 전해지기를 옛날 聖인이 고여 놓은 것이라 하는데 과연 기이했다(明日將向金馬郡 求所謂支石者觀之 支石者 俗傳古聖人所支 果有奇迹之異常者).

현재 전라북도지역의 대부분의 支石墓는 그 형태가 받침돌인 支石이 잘 보이지 않는 기반식 지석묘인데 비해 이규보가 본 고인돌은 전북 지방에서 몇 안되는 탁자식 고인돌로 추정된다. 전라북도의 탁자식 지석묘는 고창의 도산리 지석묘¹³⁾가 대표적으로 이규보가 찾은 금마지역의 지석묘는 도산리 지석묘의 규모보다는 더 큰 지석묘일 것으로 추측된다.

支石이란 표현은 중국의 기록 가운데에는 支石이란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¹⁴⁾ 이규보 당시 고려인들이 독자적으로 支石이라는 표현을 사

13) 도산리 지석묘는 전라북도 기념물 49호로서 높이 251cm, 가로344cm, 세로 290cm이며 두께 60cm이다. 현재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북방식(탁자식)이다.

14) 『漢書』 27 五行志 七中之上元鳳. 3년 1월 태산의 來燕山 남쪽에서 수천 명이 ‘성성’하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큰돌이 스스로 세워져 있었다. 이는 높이가 1장 5척이고, 크기가 48발이며 깊이가 8척으로 큰돌의 밑에는 3개의 돌이 받치고 있는데, 이 큰 돌 주변에 수천의 백조가 한데 모이고 있었다.(孝昭元鳳三年正月, 泰山萊燕山南匈匈有數千人聲. 民視之, 有大石自立, 高丈五尺, 大四十八圍, 入地深八尺, 三石爲足. 石立處, 有白鳥數千集其旁).

마침 양평 연리사에 큰 돌이 생겼는데, 그것은 길이가 1장 남짓하고, 그 아래에는 세 개의 작은 돌을 다리모양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공손도에 말하기를 “이것은 한나라 宣帝의 면류관 모양의 돌로서 상서를 나타내는 징조다.

『三國志』 8, 魏書8, 公孫度. “時襄平延里社生大石 長丈餘 下有三小石爲之足 或謂度曰 此漢宣帝冠石之祥.”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난 내용에 의하면 支石을 기본적으로 墳墓로서 이해하는 인식은 없었지만 이 支石을 “옛날 聖인이 고여 놓은 것”이라 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聖인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로 支石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支石을 당시 고려인들이 신성한 존재로서 인식하여, 지역의 특이한 존재로 소문이 나있었으며 이규보가 이 지역을 순방할 때에도 일부러 찾아 보고자 할 정도로 당대인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支石墓를 단순히 墳墓로서 뿐만이 아니라 祭壇¹⁵⁾이나 墓標石의 기능으로 만들었다는 인식¹⁶⁾과 연결된 종교적 신성성이 이미 고려시기에 존재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즉, 이러한 인식은 현대적 해석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규보 기록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2. 고구려승려 普德의 飛來方丈 관련기록

普德은 7세기 후반 고구려에서 백제지역으로 망명한 승려로서 대각국사 義天은 元曉와 義相이 그에게서 『涅槃方等經』을 전수받았다고 전하고 있으며 신라말의 崔致遠이 普德의 전기를 남겼고 고려의 김부식도 普德傳을 지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¹⁷⁾ 이같이 유불학자들에게 모두 추앙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규보는 「南行月日記」와 경복사관련 시문에서 보덕이 옮겨온 전주 경복사의 飛來方丈에 대한 관심을 다음

상기 기록에서 보듯이 지석묘 관련 중국기록에서는 石立, 冠石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支石墓를 중국에서는 돌시렁이란 의미의 ‘石棚’ 또는 큰 덮개돌 무덤이란 의미의 大石蓋墓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編, 1994, 『遼東半島石棚』,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5) 이윤조, 하문식, 1989, 「한국 고인들의 다른 유형에 관한 연구—「제단고인돌」 형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6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6)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17) 김주성, 2003, 「『보덕전』의 검토와 보덕의 고달산이주」 『韓國史研究』 121.

과 같이 표명하고 직접 방문하여 시를 남겼다.¹⁸⁾

주 소재지(전주)에서 1천 步쯤 떨어진 지점에 景福寺가 있고 그 절에는 飛來方丈이 있다. 이것을 내가 예전부터 들었으나 사무에 바빠서 한번 찾아보지 못하였다가 하루는 휴가를 이용하여 결국 가보았다.

이규보는 경복사를 방문하여 보덕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내력을 간략히 소개하고 관련 시문을 저술하였는데 이 내용은 같은 사실을 전하는 『三國遺事』의 寶藏奉老 普德移庵의 내용과 상보관계를 이루고 있다. 관련 내용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三國遺事』寶藏奉老 普德移庵	1) 「南行月日記」(전주 경복사) 2) 경복사유람시(약칭)
<p>… 그 때 盤龍寺에 있던 普德화상이 도교가 불교와 맞서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여러번 왕에게 간했으나 왕은 듣지 않으므로 신력으로 方丈을 날려 남쪽에 있는 完山州(지금의 소주) 孤大山으로 옮겨 살았으니 바로 永徽 元年 庚戌(650) 6월 이었다. 또 本傳에는 建隆 2년 正月(667) 3월 3일의 일이라 했다.</p> <p>總章 元年 戊辰(668)에 나라가 망했으니 셈해 보면 19년 후가 된다. 지금의 景福寺에 날아온 方丈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 한다.</p> <p>진락공(고려 이자현의 시호)은 그를 위해 시를 써서 堂에 남겨두었고, 문열공(김부식의 시호)은 그의 전기를 저술하여 세상에 전했다. …</p>	<p>1) … 景福寺가 있고 그 절에는 飛來方丈이 있다 … ‘飛來方丈’이란 것은 옛날 普德大士가 盤龍山(咸興에 있다)으로부터 날려서 옮겨온 堂이다. 普德의 字는 智法인데, 일찍이 고구려 盤龍山 延福寺에 거처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제자에게 말하기를,</p> <p>“고구려가 道敎만을 존중하고 佛法을 숭상하지 않으니, 이 나라는 반드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피난을 해야 하겠는데 어느 곳이 좋을 까?”하자, 제자 明德이 말하기를,</p> <p>“全州에 있는 高達山이 바로 편안히 머무를 만한 땅입니다.”하였다.</p> <p>乾封 2년(667, 보장왕 26) 正月 3일에 제자가 문을 열고 나와 보니, 堂이 이미 고달산으로 옮겨갔는데,</p>

18) 이규보 「南行月日記」 『東國李相國集』.

<p>대안 8년 신미(1092)에 고려의 우세승통(대각국사 의천)이 孤大山 景福寺의 飛來方丈에 가서 보덕성사의 영정을 뵈고 시를 지었다. ...</p> <p>발문에는 이런 말이 있다.</p> <p>“고구려 보장왕이 도교에 미혹하여 불교를 믿지 않으므로 이에 보덕법사는 승방을 날려서 남쪽의 산으로 옮겨 놓았다.” ... 이런 것은 모두 國史와 같고 그 나머지는 모두 本傳과 僧傳에 적혀 있다.</p> <p>보덕법사에게는 11명의 덕이 높은 제자가 있었다. ...</p>	<p>반룡산에서 1천여 리의 거리였다. 明德이 말하기를,</p> <p>“이 산이 비록 奇絶하기는 하나 샘물이 없다. 내가 만일 스승이 옮겨올 줄 알았더라면 반드시 옛 산에 있는 샘물까지 옮겨왔을 것이다.” 하였다.</p> <p><u>崔致遠이 傳을 지어 이에 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한다.</u></p> <p>2) 시월 팔일 景福寺를 유람하고 이튿날 飛來方丈에 찾아가 普德聖人の 影幀을 처음 보았다.</p> <p>현판 위에 宗聆首座 內翰 李仁老의 시가 있었는데 그 절의 주지가 시를 칭하기에 차운해서 그 끝에 쓰다. ... 처음에는 10제자뿐이었는데, 뒤에 明德을 얻어 11인이 되었다.</p>
--	---

『三國遺事』와 이규보의 기록을 비교하면 普德이 고구려에서 전주 지역으로 옮겨왔다는 사실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은 같지만 구체적인 移動時期와 地名과 내용은 서로 달라 인용자료가 서로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三國遺事』와 이규보의 기록은 普德, 景福寺, 飛來方丈 등 명칭은 일치하지만 시기와 지명 등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양 기록간 내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보덕이 방장을 옮긴 시기 즉, 보덕이 전주지역으로 이동한 시기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¹⁹⁾

먼저 『三國遺事』는 보덕의 移庵 시기를 永徽 元年 庚戌(650) 6월로 제시하고 있는 데이 내용은 보덕의 망명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三國史記』의 내용과 같다.²⁰⁾ 이에 비해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서는 乾

19) 鄭善如, 2007, 『고구려 불교사 연구』, 서경문화사.

20) 『三國史記』 20, 高句麗本紀10 ‘寶臧王’ “九年夏六月, 盤龍寺 普德和尚以國

封 2年(667년) 丁卯 3月 3日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三國遺事』의 해당 내용을 보면 一然是 기본적으로 國史를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하였고 이규보는 말미에 기록한 것처럼 보덕에 대한 최치원의 傳을 인용하여 기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三國遺事』가 참고한 기록 가운데 ‘本傳’에 의하면 乾封 2년 丁卯(667) 3월 3일이라고도 한다는 내용을 수록하여 결국 이규보가 참고한 최치원이 지은 보덕에 대한 ‘傳’이 『三國遺事』에서 언급되고 있는 ‘本傳’임을 보여주고 있다.²¹⁾ 따라서 『三國遺事』는 國史 내용을 중심으로 보덕관련 기록을 수록한 것에 대해 이규보의 기록은 현재는 전하지 않는 崔致遠의 기록을 전해 주어 보덕에 대한 보다 다채로운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기록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명칭	『三國遺事』 인용 國史	이규보 인용 최치원 보덕전
시기	永徽 元年 庚戌(650) 6월	乾封 2년 丁卯(667) 3월 3일
지명	孤大山	高達山
	盤龍寺	盤龍山 延福寺
	完山州	全州

그런데 중요한 점은 보덕의 이동시기문제이다. 두 기록의 차이가 내포한 문제는 단순히 17년의 시간적 선후차이 문제가 아니라 보덕의 망명 대상국가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즉, 『三國遺事』가 인용한 國史기록의 650년은 보덕이 高句麗에서 百濟로 망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치원의 本傳의 667년은 보덕이 高句麗에서 백제가 망한 뒤 新羅

家奉道, 不信佛法, 南移完山 孤大山.”

이 기록에 나타난 명칭과 시기등이 모두 삼국유사기록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삼국유사』가 참고한 國史가 『삼국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강래, 1996, 『『三國史記』典據論』, 민족사, 281쪽.

21) 박승훈, 1992, 「통일신라시대 승전의 저술과 그 의의」 『한국학보』 69 ; 이강래, 1996, 앞의 책, 281-282쪽.

가 장악한 백제지역으로 망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三國史記』의 기사에서는 650년 보덕이 고구려에서 백제로 망명하였다고 나타나 있고 『三國遺事』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650년을 망명시점으로 보고 있다. 즉, 650년은 보덕이 고구려 반룡사에서 남하하여 고대산에 도착한 시점이고 667년은 경복사가 완공되어 이주가 마무리된 시점으로 이해²²⁾하고 667년을 강조한 것은 최치원이 보덕의 이주와 고구려멸망을 연결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되었다.²³⁾

그런데 이규보가 최치원의 기록을 참고하여 간략히 기록한 내용이지만 관련부분을 비교해보면 망명시기에 대해 ‘乾封 2년 丁卯(667) 3월 3일’로 명시되어 있고 보덕이 고구려에서 있었던 곳이 盤龍山 延福寺로 기록되어 있어 보덕의 망명시기 및 관련지명 등이 훨씬 구체적이다. 즉, 망명시기에 있어 이규보의 기록은 구체적 날짜가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내용의 구체성에서 보면 이규보의 기록이 신뢰성이 높다. 이에 비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國史인용 내용은 ‘6월’로 시기가 표시되어 있고 고구려 사찰의 이름도 盤龍寺로만 기록되어 상대적으로 시기와 장소에 대한 기록 정확도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3월3일’이란 날짜는 高句麗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즉, 고구려에서는 매년 3월 3일 君臣 및 5부의 병사 등이 樂浪의 언덕에서 사냥한 노획물로 天神과 山川神에게 제사하는 국가적인 大祭典이 있었다.²⁴⁾ 이러한 고구려의 전통적 국가제전이 거행되는 날인 3월3일이 봄을 맞아 除厄의 의미가 강조되는 ‘삼월삼집날’이란 의미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개념이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따

22) 노용필, 1989, 「보덕의 사상과 활동」, 『한국상고사학보』 2 ; 정병삼, 2003, 「보덕의 불교와 7세기 삼국사회」, 『보덕화상과 경복사지』, 신아출판사 ; 鄭善如, 2007, 「고구려 불교사 연구」, 서경문화사.

23) 김주성, 2003, 「『보덕전』의 검토와 보덕의 고달산이주」, 『韓國史研究』 121.

24) 『三國史記』 45, 列傳 溫達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라서 3월3일은 普德이 당시 淵蓋蘇文에 의해 진행되었던 道教숭상에 대한 정치 종교적 대항으로서 단행한 타국으로의 망명사건을 부각할 수 있는 날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은 날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三國遺事』 인용 國史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여러 정치적 상황 등이 망라된 종합적 역사기록일 가능성이 높다.²⁵⁾ 이에 비해 비해 崔致遠의 ‘普德傳’은 보덕 개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한 僧傳으로서 최치원의 불교관련 저술²⁶⁾ 및 당대 최고의 승려들을 위해 撰한 四山碑 내용의 정밀성²⁷⁾을 감안할 때 보덕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규보가 참고한 崔致遠의 ‘普德傳’이 보덕관련 내용을 보다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된다.

한편, 경복사를 방문하며 지은 詩文에 의하면 景福寺와 飛來方丈은 별도의 위치에 존재하며 경복사에 유숙하고 다음날 찾아야할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그 飛來方丈에 보덕대사의 영정이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三國遺事』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이규보 기록의 중요성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東院, 西院이란 명문기와가 발견되고 전체 구역이 3개 지역으로 나뉘어 中院의 존재까지 추정된다는 보고내용은 경복사의 규모가 상당하며 비래방장이 별도로 존재한 정황과 연결되고 있다.²⁸⁾

25)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26) 金福順, 1990, 『新羅華嚴宗研究; 崔致遠의 佛教關係著述과 관련하여』, 民族社.

27) 崔英成, 1998, 『譯註 崔致遠全集』 第1卷 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28) 경복사지는 전북대 박물관이 1976년 전북 지방의 지역별 문화재 조사를 위한 지표조사와 2000년 실시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高德山 景福寺 萬曆 四十年’이라 새겨진 명문기와편과 慶福寺, 東院, 西院명 기와가 확인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된 학술발표를 통해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에서 관련 논저가 간행되었다. 전북대전라문화연구소, 2003, 『보덕화상과 경복사지』, 신아출판사.

3. 元曉, 蛇包관련 기록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 나타난 신라 승려 元曉와 관련된 기록은 邊山 蘇來寺 인근에 존재하고 있는 元曉房을 방문하고 남긴 기록이다.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 8월 20일은 내 先君의忌日이었다. 하루 앞서 邊山 蘇來寺에 갔는데, 벽 위에 高故 資玄居士의 시가 있으므로 나도 2수를 화답하여 벽에 썼다.

다음날 扶寧縣令 李君 및 다른 손님 6~7인과 더불어 元曉房에 이르렀다. 높이가 수십 층이나 되는 나무 사다리가 있어서 발을 후들후들 떨며 찬찬히 올라갔는데, 庭階와 窓戶가 수풀 끝에 솟아나 있었다. 듣건대, 이 따금 범과 표범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결국 올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곁에 한 암자가 있는데, 속어에 이른바 ‘蛇包聖人’이란 이가 옛날 머물던 곳이다. 元曉가 와서 살자 蛇包가 또한 와서 모시고 있었는데, 차를 달여 曉公에게 드리려 하였으나 샘물이 없어 딱하던 중, 이 물이 바위 틈에서 갑자기 솟아났는데 맛이 매우 달아 젓과 같으므로 늘 차를 달였다 한다. 元曉房은 겨우 8척쯤 되는데, 한 늙은 중이 거처하고 있었다. …… 방 한가운데를 막아 內室과 外室을 만들었는데, 내실에는 佛像과 圓효의 眞容이 있고, 외실에는 瓶 하나, 신 한 켤레, 찻잔과 經机만이 있을 뿐, 炊具도 없고 侍者도 없었다.

「南行月日記」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주성, 「보덕에 관한 사료 검토」; 정병삼, 「普德의 불교와 7세기 삼국 사회」; 김방룡, 「신라통일기 불교사상의 전개와 普德의 열반중」; 노용필, 「普德의 佛教守護思想과 涅槃思想」; 윤덕향, 「경복사지의 현황과 가람에 대한 추론」; 김해근, 「韓國佛教 涅槃宗 小史」.

한편, 관련유물자료는 다음 자료 참고.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2005, 「완주 경복사지」 『전북의 옛 절터 출토유물』, 대광출판사.

邊山을 楞迦라고도 한다. 옛날 원효가 살던 方丈이 지금까지 있는데, 한 늙은 比丘僧이 혼자 修真하면서 시중드는 사람도 술·탕반 등 밥짓는 도구도 없이 날마다 蘇來寺에서 재만 올릴 뿐이었다.

산을 따라 위태로운 사다리 건너고	循山度危梯
발을 겹치며 선로를 다니네	疊足行線路
위엔 백 길의 산마루 있으니	上有百仞巔
원효가 일찍이 집 짓고 살았네	曉聖曾結宇
신령의 자취 어디로 사라졌나	靈蹤杳何處
남긴 진영 비단에 머물러 있구나	遺影留鵝素
다천에 맑고 깨끗한 물 괴었으니	茶泉貯寒玉
마시매 그 맛 것과 같구려	酌飲味如乳
이곳에 옛날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	此地舊無水
스님들이 살아갈 수 없었다는데	釋子難棲住
원효가 한번 와서 산 뒤에는	曉公一來寄
마위 구멍에서 단물이 솟아났네	甘露湧巖竇

...

팔월 이십일에 楞迦山 元曉房에 재하다
『東國李相國集』 제9권, 古律詩

상기 기록에는 이규보가 邊山 蘇來寺를 방문하였다가 元曉房을 방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내용에서는 원효와 함께 신라 十聖중의 한 명인 ‘蛇包聖人’ 즉, 蛇福에 대한 언급도 남기고 있다.²⁹⁾

그런데 『三國遺事』에서는 원효와 관련된 기록 가운데 원효가 현재의 邊山지역을 방문하였거나 관련된 사건을 전하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一然은 元曉傳記를 ‘元曉不羈’라는 제목으로 『三國遺事』에 수록하고 기타 단편적인 내용을 다른 항목에서 10여차례

29) 김상현, 1982, 「蛇福說話의 佛敎的 意味」 『史學志』 16 ; 김상현, 1991,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165쪽 ; 나희라, 2006, 「고대 한국의 저승관과 지옥관념의 이해」 『한국문화』 38.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원효에 대해서는 이미 僧傳 등 다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연의 입장에서 邊山관련 행적은 중시되지 않아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다.³⁰⁾ 따라서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 수록된 邊山에서의 원효 행적은 유일한 기록이란 점에서 사료적 가치와 의미가 크다고 파악된다.

고려시대 원효에 대한 승배는 그를 菩薩, 聖師로 지칭할 정도였는데³¹⁾ 특히, 원효의 진영이 邊山 元曉房에 남아있다는 점은 원효가 주석하였던 尙州 四佛山 白蓮寺에 진영이 봉안된 사실³²⁾과 연결되어 원효가 이곳을 방문하여 실제 거주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문제는 원효가 왜 邊山지역까지 와서 蘇來寺 인근에 거주하였는가 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 가운데 원효관련 기록에 함께 언급되고 있는 ‘蛇包聖人’이 주목된다.

蛇包聖人は『三國遺事』 4 義解 5 蛇福不言조에 나오는 蛇福과 동일인으로서³³⁾ 『三國遺事』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蛇福不言

서울 만선북리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도 없이 아이를 배어 낳았는데 그 아이는 나이 12세가 되도록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 때문에 사동—아래에서는 혹 蛇福이라고도 하고, 또 사과, 蛇福이라고 썼다. 이것은 모두 사동의 이름이다.—이라 불렀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 그 때 원효가 고선사에 있었는데 蛇福이 찾아왔다. 원효는 그를 보고 맞아 예를 했으나 蛇福은 답례도 없이 말했다.

30) 그의 遊方의 시말과 불교를 널리 편 큰 자취들은 당승전과 그의 행장에 자세히 올려 있으므로 여기에는 다 쓰지 않고, 다만 향전에 실린 한두 가지 이상한 일만 기록한다. 『三國遺事』 4, 義解 5 元曉不羈.

31) 김상현, 1994, 「고려시대의 원효인식」 『정신문화연구』 17권 1호(통권 54호), 67-68쪽.

32) 김상현, 1993, 「원효의 진영에 관하여」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4.

33) 김상현, 1982, 앞의 논문.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을 신고 다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나와 함께 장사지냄이 어떻겠는가?”

원효는 좋다고 하고 같이 蛇福의 집으로 갔다. 여기에서 蛇福은 원효에게 布薩³⁴⁾시켜 계를 주게 하니, 원효는 그 시체 앞에서 빌었다.

“세상에 나지 말 것이다.

그 죽는 것이 괴로움이라.

죽지 말 것이니라.

세상에 나는 것이 괴로우니라.”

蛇福이 너무 길어 번거롭다고 하자 원효가 고쳐 말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괴로움이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상여를 메고 활리산 동쪽 기슭으로 갔다. 원효가 말했다.

“지혜있는 범을 지혜의 숲 속에 장사지냄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蛇福은 이에 徧를 지어 읊었다.

그 옛날 석가모니불께서는

사라수 사이에 열반하셨네.

그같은 이 지금 또 있어

연화장 세계로 들려고 하네.

흙기를 마치고 띠풀의 줄기를 뽑으니 그 밑에 명랑하고 청허한 세계가 있었고, 칠보로 장식된 난간에 누각이 장엄한데 아마 인간의 세계는 아닌 것같았다. 蛇福이 시체를 업고 그 속으로 들어가자 문득 땅이 합쳐졌다.

이것을 보고 원효는 혼자 돌아왔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금강산의 동남쪽에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道場寺라 했다. 해마다 3월 14일이 되면 占察會를 여는 것을 恒規로 삼았다.

蛇福이 세사에 영겁을 나타낸 것은 오직 이것뿐인데, 세간에서는 황당한 얘기를 덧붙였으니 가소로운 일이다.(福之應世 唯示此爾 俚諺多以荒

34) 불교의식의 하나로 출가한 이에게 중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戒經을 들려주고 죄를 참회시켜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일.

唐之說托焉 可笑)

『三國遺事』 4 義解 5 蛇福不言

『三國遺事』에 전하는 元曉와 蛇福과의 관계는 경주지역에서 벌어진 일로 蛇福의 모친장례와 관련하여 蛇福이 원효를 타박하고 地下世界로 母親屍身과 함께 들어갔다는 내용이다.³⁵⁾ 이 내용은 신라시대 일반인들이 死後世界인 지하세계에 대한 저승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³⁶⁾ 종래 이 ‘蛇福不言’의 설화를 화엄사상을 설화화한 것으로 이해하거나³⁷⁾ ‘뱀아이’가 죽은 어머니를 데리고 지하의 행복한 세계로 갔다’는 이야기로 이해해 신라시대의 生死觀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⁸⁾ 더욱이 蛇福은 신라의 국가적 사찰인 興輪寺에 모셔진 新羅 10聖人 가운데 원효와 함께 기재되고 있어 신라사회에서 매우 비중 높은 존재임을 확인시켜준다.

동쪽 벽에 앉아서 서쪽으로 향한 泥塑는 阿道, 馱羈, 惠宿, 安舍, 義湘이다.

서쪽 벽에 앉아서 동쪽을 향한 泥塑는 表訓, 蛇巴, 元曉, 惠空, 慈藏이다.

『三國遺事』 3 塔像 4 東京興輪寺 金堂十聖

상기사료에 나타난 10聖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홍륜사가 王統의 변화와 연결되어 중고기와 하대에 왕실과 관계가 깊고 위상이 높았으며³⁹⁾ 金堂十聖의 성격이 彌勒下生信仰과 연관된다는 논고도 있다.⁴⁰⁾

35) 蛇福설화에 대해서는 金相鉉, 1982, 앞의 논문, 참조

김현선, 1999, 「蛇福불언 설화이해의 층위」 『한국민속학』 31.

36) 나희라, 2006, 앞의 논문, 177-179쪽.

37) 김상현, 1982, 위의 논문.

여기에서는 이 설화를 구성하는 여러 話素들을 화엄경을 비롯한 화엄경전과 여러 화엄사상가들의 논설로서 설명하고 있다.

38) 나희라, 2006, 위의 논문, 177-179쪽.

한편, 홍륜사 金堂十聖은 이차돈 추모사업과 禪宗이 보급되던 헌덕왕, 흥덕왕대로서 홍륜사의 중고기 역할의 부활과 관련되는 불교의 정착, 대중화, 국가불교의 성립에 기여한 聖者들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⁴¹⁾

그런데 이들 10聖인에 대한 略傳을 보면⁴²⁾ 蛇福의 다른 표현인 蛇巴를 제외한 9명의 존재들은 정통 佛教僧侶로서의 행적이 뚜렷한 데 비해 蛇福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에서 死後世界와 관련된 독특한 신앙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즉, 蛇福이라는 이름의 본질은 뱀을 상징하는 것으로 뱀은 허물을 벗고 동면을 하는 즉, 죽음과 재생을 반복함으로써 결국은 不死의 지혜를 획득한 대표적인 동물로서 지하세계를 대표하는 동물이며 死者들의 靈魂으로 여겨진 존재였다.⁴³⁾ 특히, 신라 토기에 부착된 土偶 가운데 묘사된 뱀모양 등은 사후세계와의 관련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뱀관련 존재의 고유성을 보여준다.⁴⁴⁾

따라서 신라사회에서 蛇福은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던 민간신앙적 숭배의 대상으로서 불교적인 변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된다. 특히, 이 같은 성격은 『三國遺事』의 사복 관련 기록의 말미에 기술된 다음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蛇福이 세사에 靈驗을 나타낸 것은 오직 이것 뿐인데, 世間에서는 황당한 얘기를 덧붙였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39) 신동하, 1999, 「신라 興輪寺의 창건과 변천」 『人文科學研究』 6, 동덕여대.

40) 郭丞勳, 1998, 「新羅 下代 前期 興輪寺 金堂 十聖의 奉安과 彌勒下生信仰」 『韓國思想史學』 11.

41) 한기문, 2002, 「신라 하대 홍륜사와 金堂 十聖의 성격」 『新羅文化』 20, 東國大 신라문화연구소.

42) 김영태, 1977, 「新羅十聖考」 『한국학연구』 2,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43) 나희라, 2006, 앞의 논문, 180-182쪽.

44) 국립중앙박물관, 2009, 『경주 황남동 출토 신라 토우, 영원을 꿈꾸다』, 국립중앙박물관.

즉, 사료에 보이는 것처럼 蛇福의 靈驗이야기와 달리 “황당한 이야기(荒唐之說)”가 있다는 부분이 민간신앙의 숭배 대상자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⁴⁵⁾

이러한 사실은 元曉와 蛇包聖人 즉, 蛇福이 邊山지역에서 비록 원효를 보좌하여 원효에게 차를 끓여 준 존재로서 소개되고 있지만 오히려 元曉와 蛇福으로 대표되는 사후세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이 邊山지역과 관련하여 존재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⁴⁶⁾

邊山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학계의 논란이 비등한 百濟復興軍의 거점인 周留城의 위치문제이다.⁴⁷⁾ 종래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인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의 乾至山城으로 비정하는 견해와 전라북도 부안군 位金巖山城으로 비정하는 견해로 나뉘었는데 최근에는 부안지역으로 보는 입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⁴⁸⁾ 주류성의 위치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이곳에서는 진행할 수 없지만⁴⁹⁾ 元曉와 蛇福은 죽은 이들을 사후세계로 모시는 역할과 관련된 내용으로 유일하게 『三國遺事』에 함께 기록되고 있으며 蛇福의 성격이 앞서 검토한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사후세계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인 민간신앙적 요소의 존재임을 감안할 때 元曉

45) 나희라, 2006, 앞의 논문, 182-184쪽.

46) 이 문제는 원효와 관련된 창건설화를 지닌 다른 사찰과의 비교를 통해 사복과 함께 등장하는 이 설화의 특성을 보다 구체화시켜 논거를 보완해야 했으나 별도의 기회를 통해 보완코자 함

47) 全榮來, 1982, 「三國統一戰爭과 百濟復興運動－周留城·白江의 軍事地理學的 考察－」 『軍史』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노도양, 1983, 「백제주류성고」 『백제연구』 14,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변인석, 1994, 『백강구 전쟁과 백제·왜관계』, 한울; 沈正輔, 1999, 「百濟 周留城考」 『百濟文化』 28,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48)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김영관, 2005,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

49) 이 문제는 기존 논의와 본고에서 논의한 元曉, 蛇福의 활동기록 등을 바탕으로 별도로 논하고자 함.

와 蛇福이 활동한 邊山지역은 이들이 존재했던 시기에 발생한 대량의 죽음공간이었던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주류성과 밀접히 관련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元曉와 蛇福이 이 지역에서 활동한 사실 자체가 백제의 마지막 거점지역을 장악한 신라의 입장에서 이 지역을 위무하고 포섭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규보가 언급하고 있는 元曉房 관련기록은 元曉와 蛇福이란 新羅 10대 聖人중 2명이 과거 백제지역이자 백제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邊山지역에서의 활동을 전해주는 유일한 기록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의미를 천착할 때 백제부흥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살상의 중심지역에 이들 죽은 자 및 관련 사람들을 불교적 사후세계와 전통 민간신앙적 사후세계를 결합시킨 관념을 활용해 위무할 수 있는 元曉와 蛇福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4. 眞表의 不思議方丈 관련기록

이규보는 원효방 방문과 함께 또 다른 기이한 공간인 眞表의 不思議方丈을 방문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른바 ‘不思議方丈’이란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서 구경하였는데, 그 높고 험함이 원효방장의 만배였고 높이 1백 척쯤 되는 나무사다리가 끈게 절벽에 걸쳐 있었다. 3면이 모두 위험한 골짜기라, 몸을 돌려 계단을 하나씩 딛고 내려와야만 방장에 이를 수가 있다. 한 번만 헛디디면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나는 평소애 높이 한 길에 불과한 樓臺를 오를 때도 두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아찔하여 굽어볼 수 없던 터인데, 이에 이르러는 더욱 다리가 와들와들 떨려 들어가기도 전에 머리가 벌써 빙 돈다.

그러나 예전부터 이 勝跡을 익히 들어오다가 이제 다행히 일부러 오게 되었는데, 만일 그 방장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또 眞表大士의 像을 뵈지 못한다면 뒤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어정어정 기어 내려가는데, 발은 사다리 계단에 있으면서도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드디어 들어가서 부싯들을 쳐서 불을 만들어 쬐고 律師의 眞容에 예배하였다.

… 그 방장은 쇠줄로 바위에 박혀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는데, 세속에서 전하기를 海龍이 그렇게 한 것이라 한다.
(其方丈 以鐵索釘巖故不欹 俗傳海龍所爲也)

「남행월일기」

상기기록에 나타난 진표 수행처로서의 不思議方丈은 진표의 수행과정에서 중시된 공간으로 여러 기록에 나뉘어 전하고 있다. 眞表의 傳記는 현재 一然이 찬한 「眞表傳簡」, 1197년 瑩峯이 지어 1199년 鉢淵寺에 세운 「鉢淵藏 眞表律師 眞身骨藏立石碑銘」, 988년 贊寧이 찬술한 宋高僧傳에 실린 「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등 3종류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⁵⁰⁾ 종래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된 진표에 대한 연구는 占察懺悔教法の 수행자로서 독자적인 占察教法을 창안했으며,⁵¹⁾ 新羅 王京에서 활동한 太賢과 대비시켜 지방에서 활동한 法相宗 승려로 보기도 한다.⁵²⁾ 한편, 사회사상적으로 眞表는 百濟遺民으로 反新羅的 이상국가 건설을 주도한 자로,⁵³⁾ 그의 미륵신앙을 신라 말 농민봉

50) 金南九, 1997, 「眞表의 傳記 資料 檢討」 『國史館論叢』 78.

51) 金煥泰, 1972,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 『佛敎學報』 9 ; 金煥泰, 1987, 『新羅佛敎研究』, 民族文化社 ; 蔡印幻, 1986, 「新羅 眞表律師 研究 (I)」 『佛敎學報』 23 ; 蔡印幻, 1987, 「新羅 眞表律師 研究(II)」 『佛敎學報』 24 ; 蔡印幻, 1988, 「新羅 眞表律師 研究(III)」 『佛敎學報』 25.

52) 文明大, 1974,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上)(下)-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62-63 ; 金南九, 1995, 『新羅 法相宗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53) 李基白, 1986,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佛敎史研究』, 一潮閣.

기,⁵⁴⁾ 나아가 甄萱이나 弓裔의 反新羅 움직임과 관련지어 보기도 한다.⁵⁵⁾ 즉 진표에 대한 연구는 점찰법회와 미륵신앙의 두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반신라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진표가 占察法會를 통해 재가신자들을 彌勒淨土往生으로 이끌었다고 보아 두 입장을 연결시켜보고자 하였다.⁵⁶⁾ 이렇듯 진표 연구의 주요 과제는 점찰법회와 미륵신앙의 이해방식이었다.⁵⁷⁾ 그런데 이러한 진표활동의 출발점이 바로 변산 不思議方丈이었다. 그리고 이규보의 기록에서도 이들 기록과의 차이와 상보적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이들 3기록 가운데 특히 『三國遺事』에 수록된 眞表傳簡의 내용과 關東楓岳鉢淵藪 石記내용을 南行月日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유사하나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표로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眞表傳簡	關東楓岳鉢淵藪 石記	『南行月日記』
A-1. 중 진표는 완산주 사람이다. 아버지는 진내말, 어머니는 길보랑이며 성은 井씨이다. 나이 12살 때에 금산사의 순제법사의 강석 밑에 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 진표는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선계산 불사의앞에 머물면서 3업을 닦아서 亡身懺法으로 계를 얻었	A-2. 진표올사는 전주 <u>벽골군 도나산촌 대정리</u> 사람이다. 나이 12세에 이르러 출가할 뜻을 가지니 아버지는 이를 허락했다. 올사는 금산사 순제법사에게 가서 <u>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u> ... 나이 이미 27세가 되었다. 상원 원년 경자(760)에 쌀 20말을 찌서 말려 양식을 만들	A-3. 올사는 이름이 眞表이며 碧骨郡 大井村 사람이다. B-3. 그는 12살 때 賢戒山 不思議巖에 와서 거처하였는데 현계산이 바로 이 산이다. 그는 冥心하고 가만히 앉아 慈氏(미륵보살)와 地藏(지장보살)을 보고자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자 이에 몸을

54) 趙仁成, 1996, 「彌勒信仰과 新羅社會」, 『震檀學報』 82.
 55) 尹汝聖, 1998, 「新羅 眞表와 眞表系 佛教 研究」,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56) 박광연, 2006, 「眞表의 占察法會와 密敎 수용」, 『韓國思想史學』 26.
 57) 박미선, 2008, 「新羅 眞表係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49, 한국고대사학회.

<p>다. 그는 처음 7일 밤을 ... 다시 7일을 정하였다. 14일이 되는 날 마침내 지장보살을 뵈고 정계를 받았으니 바로 개원 28년 경진(740) 3월 15일진시요, 진표의 나이 이 때 23세였다.</p> <p>그러나 그의 뜻은 자씨(慈氏-미륵보살)에게 있는지라 감히 중지하려 하지 않고 영산사로 옮겨가서 또 처음처럼 부지런하고 용감하게 수행했는데, 과연 미륵보살이 감응하여 나타나더니 점찰경 2권과 증과간자(證果簡子) 1백 89개를 주면서 말했다.</p> <p>“이 가운데서 제 8간자는 새로 얻은 묘계를 비유한 것이고, 제 9간자는 구족계를 얻은 것에 비유한 것이다. ...</p>	<p>고 보안현에 가서 邊山에 있는 不思議房으로 들어갔다. ... 몸을 던지니 문득 청의동자가 손으로 만들어 돌 위로 올려 놓았다. 을사는 다시 분발하여 21일을 기약하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도하고 ... 21일이 다 되니 곧 天眼을 열고 도솔천중(道率天衆)들이 오는 모양을 볼수 있었다. 이 때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 지장은 戒本을 주고, 미륵이 또 목간자 두 개를 주었는데, 하나에는 아홉째 간자, 다른 하나에는 여덟째 간자라고 쓰여있었다. 미륵보살이 을사에게 말했다.</p> <p>“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 뼈이니 곧 始와 本의 두 覺을 이르는 것이다. ...</p> <p>... 도중에 대연진에 이르렀을 때, 문득 용왕이 나오더니 옥가사를 바치고 ...</p>	<p>구렁에 던지니, 두 명의 靑衣童子가 손으로 받으면서 말하기를, “대사의 법력(法力)이 약한 때 문에 두 성인이 보이지 않습니다.”하였다. 그래서 그는 더욱 노력하여 三七日에 이르니, 바위 앞 나무 위에 자씨와 지장이 現身하여 戒를 주고, 자씨는 친히 『占察經』 2권을 주고 아울러 1백 99점을 주어 導往의 도구로 삼게 하였다.</p>
--	--	--

상기기록을 비교해 보면 진표의 전기관련 내용은 『三國遺事』가 인용하고 있는 자료가 구체적이고 내용 또한 풍부하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不思議方丈에 대한 구체적 정황기록은 이규보의 기록이 가장 자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불사의방장이 벼랑 끝에 매달린 매우

독특한 수행처로서 不思議方丈에 眞表의 影幀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앞서 元曉房의 경우와 景福寺에 마련된 普德의 影幀 보존 사실과 함께 생각할 때 不思議方丈의 중요성과 고려시대 이들 승려에 대한 승배의례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사료들을 비교하면 지명 등에서는 세 사료가 거의 일치하지만 이규보의 기록에서 출가나이인 12살을 불사의방장 수행나이로 기재한 점은 남행월일기의 착오로 이해된다. 또한, 차이점 중의 하나인 佛骨簡子の 숫자를 이규보는 189개가 아닌 199개로 표현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의 숫자 차이는 다른 사료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傳簡」에서는 眞表가 미륵보살에게 『占察經』과 189개 간자를 받았다고 하고, 「石記」에서는 8, 9 두 柱만 전해 받았는데, 永深 등에게 傳敎할 때에는 順濟로부터 받았던 가사·바리때·『供養次第秘法』 1권·『占察經』 2권, 간자 189매와 함께 미륵진생인 8, 9간자를 주었다고 한다. 또 「眞表傳」에서는 8, 9 두 첩자와 108번뇌명이 적힌 108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일찍이 一然은 “아마 저 108번뇌의 이름으로 알고 이를 칭한 듯 하니, 경문을 찾아보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하였다.⁵⁸⁾ 이같이 간자의 숫자에 대한 차이는 사료마다 있지만 불골간자는 189개로 파악되는 바⁵⁹⁾ 이규보의 기록에 나타난 199개는 오각이거나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숫자적인 불일치외에는 전체적으로 이규보의 기록은 양쪽의 사료와 공통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 관련자료의 신뢰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다른 기록과 비교할 때 이규보의 기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世俗에 전해지는 不思議方丈의 기이한 건축적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 그 방장은 쇠줄로 바위에 박혀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는데, 세

58) 『三國遺事』 卷4, 義解5 心地繼祖.

59) 박미선, 2008, 「新羅 眞表係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49, 한국고대사학회.

속에서 전하기를 바다 용(海龍)이 그렇게 한 것이라 한다.

자료에 나타나고 있듯이 불사의방장의 특이한 모습과 신비함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海龍을 등장시키고 있는 고려 당시인들의 설명을 첨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關東楓岳鉢淵藪 石記』에 언급된 龍王이 진표에게 포섭되는 기사와도 연결되어 진표가 邊山지역의 傳統水神관련 민간신앙세력을 포섭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이규보의 진표관련 기록에서는 不思議方丈에 대한 신이한 공간적 특성과 용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여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는 고려시대 민간인들이 사유관념과 표현형식을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와 의미가 부각된다.

IV. 맺음말

이규보의 여러 저작들 가운데 『南行月日記』는 그가 최초로 부임한 全州지역 및 전주 주변지역에 대한 紀行형식의 기록이며 이 과정에서 남긴 여러 시문들과 함께 당시 전주주변지역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주고 있다. 이들 기록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 선사 및 고대사 관련 유적들에 대한 기록이다. 즉, 청동기시대 지석묘유적에 대한 언급과 함께 삼국 및 통일신라시기 불교 승려관련 유적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 관련사료가 빈약한 한국고대사 기록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특히, 全州의 경복사와 연결된 高句麗승려 普德의 飛來方丈, 邊山의 新羅승려 元曉와 蛇福의 元曉房,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이지만 百濟유민으로 인식되었던 眞表의 不思議方丈관련 기록을 남겨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승려들에 대한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록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이들 사료들은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단편

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南行月日記』와 관련사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들 기록의 성격 및 이와 관련된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등 한국고대사 사료와의 비교검토가 더욱 필요함을 확일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진행한 자료비교 및 성격파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 될 수 있었다.

첫째, 이규보는 全州 景福寺의 高句麗 승려 普德의 飛來方丈에 대한 기록과 新羅의 대표적 승려인 元曉와 관련된 邊山の 元曉房에 대한 기록 및 민간신앙 숭배적 성격이 강한 蛇福에 대한 기록 그리고 통일신라 승려이기는 하지만 百濟계통이 강조되는 眞表의 不思議方丈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를 통해 전주권역에 존재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즉, 삼국 통일신라시기 고승들 관련 유적을 동시에 담아내는 고대사관련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이규보는 金馬의 支石을 탐방하고 이를 ‘聖人の 奇迹’으로 표현하였고 고려시대에 聖賢으로 추앙받았던 승려들과 관련된 奇迹을 중심으로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飛來方丈, 不思議方丈, 元曉房이 모두 신이한 사건이나 현장적 특이성을 갖는 곳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사찰의 위용보다는 신비한 공간들을 주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셋째, 妙巖寺와 位金巖에 대한 기록 가운데 “新羅 將軍 位金이 이 바위에 와서 石城을 쌓아 적을 막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남아 있으므로 位金巖이라 부른다.”는 부분은 이 지역이 고려이전시기에 전쟁 현장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란 점에서 주목되는 내용으로서 이 기록은 位金巖山城이 백제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인 周留城으로 파악되는 학계의 연구성과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위금산성에 대한 역사적 성격 이해에 중요한 사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록이다.

넷째, 이규보가 전하는 普德관련 기록은 崔致遠의 普德傳을 인용하여 현존하지 않는 최치원의 기록을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보덕이 전주 망명시기문제 등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경복사를

방문하며 지은 시문에 의하면 경북사와 飛來方丈은 별도의 위치에 존재하며 경북사에 유숙하고 다음날 찾아야할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 飛來方丈에 보덕대사의 영정이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三國遺事』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이규보 기록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다섯째, 이규보가 언급하고 있는 元曉房 관련기록은 元曉와 蛇福이란 신라 10대 성인 중 2명이 과거 백제지역이자 백제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邊山지역에서의 활동을 전해주는 유일한 기록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元曉와 蛇包聖人 즉, 蛇福은 死後世界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이들이 邊山지역의 백제부흥군 거점지역을 신라가 장악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죽음과 관련하여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여섯째, 이규보의 진표관련 기록에서는 不思議方丈에 대한 신이한 공간적 특성과 海龍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여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는 고려시대 민간인들의 사유관념과 표현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규보가 전주 주변지역을 순력하고 남긴 기행기록인의 「南行月日記」와 관련 詩文 등 자료는 한국고대사 관련 事實과 現場 및 관련 人物들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여 지역사이해의 자료일 뿐 아니라 한국고대사관련 사실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이규보, 남행월일기, 지석, 경북사, 보덕, 비래방장, 원효, 원효방, 사포성인, 사복, 진표, 불사의방장, 위금암

논문투고일 : 2010. 02. 13. / 논문심사완료일 : 2010. 03. 02.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東國李相國全集』, 『宋高僧傳』

2. 저서 및 논문

- 경일남, 「'南行月日記'의 수필적 특성」 『한국언어문학』 29.
- 곽승훈, 1992, 「통일신라시대 승전의 저술과 그 의의」 『한국학보』 69.
- 郭丞勳, 1998, 「新羅 下代 前期 興輪寺 金堂 十聖의 奉安과 彌勒下生信仰」 『韓國思想史學』 11.
- 국립중앙박물관, 2009, 『경주 황남동 출토 신라 토우, 영원을 꿈꾸다』, 국립 중앙박물관.
- 金南允, 1997, 「眞表의 傳記 資料 檢討」 『國史館論叢』 78.
- 金煥泰, 1972,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 『佛教學報』 9.
- 金煥泰, 1987, 『新羅佛敎研究』, 民族文化社.
- 金福順 1990, 『新羅華嚴宗研究; 崔致遠의 佛敎關係著述과 관련하여』, 民族社.
- 김상현, 1982, 「蛇福說話의 佛敎的 意味」 『史學志』 16.
- 김상현, 1991,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 김상현, 1993, 「원효의 진영에 관하여」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4.
- 김상현, 1994, 「고려시대의 원효인식」 『정신문화연구』 17권 1호(통권 54호).
- 김영관, 2005,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
- 김영대, 1977, 「新羅十聖考」 『한국학연구』 2,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 김주성 2003, 「『보덕전』의 검토와 보덕의 고달산이주」 『韓國史研究』 121.
- 金哲煥, 1985, 「李奎報『東明王篇』의 史學史的 考察; 舊三國史記 資料의 分析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46·47합집.
- 김현선, 1999, 「蛇福불언 설화이해의 층위」 『한국민속학』 31.
- 나희라, 2006, 「고대 한국의 저승관과 지옥관념의 이해」 『한국문화』 38.
- 노도양, 1983, 「백제주류성고」 『백제연구』 14,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노용필, 1989, 「보덕의 사상과 활동」 『한국상고사학보』 2.
-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 李佑成, 1982, 「高麗 武臣政權과 李奎報」 『韓國의 歷史像』上, 創批新書 41.
- 박광연, 2006, 「眞表의 占察法會와 密敎 수용」 『韓國思想史學』 26.
- 박미선, 2008, 「新羅 眞表係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49.
- 朴宗基, 1997, 「儒敎史家 李奎報의 歷史學」 『韓國史學史研究』, 于松趙東杰 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 변인석, 1994, 『백강구전쟁과 백제·왜관계』, 한울.
- 신동하, 1999, 「신라 興輪寺의 창건과 변천」 『人文科學研究』 6, 동덕여대.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編, 1994, 『遼東半島石棚』, 遼寧科學技術出版社.
- 尹汝聖, 1998, 「新羅 眞表와 眞表系 佛敎 研究」,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 李基白, 1986,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佛敎史研究』, 一潮閣.
- 이선복, 1998, 『고고학개론』, 이론과 실천, 223쪽.
- 이영문, 2002, 『한국 지식묘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 이용조·하문식, 1989, 「한국 고인들의 다른 유형에 관한 연구-「제단고인들」 형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6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2005, 「완주 경북사지」 『전북의 옛 질터 출토유물』, 대광출판사.
- 전북대전라문화연구소, 2003, 『보덕화상과 경북사지』, 신아출판사.
- 全榮來, 1982, 「三國統一戰爭과 百濟復興運動-周留城·白江의 軍事地理學的 考察-」 『軍史』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정병삼, 2003, 「보덕의 불교와 7세기 삼국사회」 『보덕화상과 경북사지』, 신아출판사.
- 鄭善如, 2007, 『고구려 불교사 연구』, 서경문화사.
- 趙仁成, 1996, 「彌勒信仰과 新羅社會」 『震檀學報』 82.
- 蔡印幻, 1986, 「新羅 眞表律師 研究(I)」 『佛敎學報』 23.
- 崔英成, 1998, 『譯註 崔致遠全集』 第1卷 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 沈正輔, 1999, 「百濟 周留城考」 『百濟文化』28,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 卓奉心, 1984, 「『東明王篇』에 나타난 李奎報의 歷史意識」 『韓國史研究』 44.
한기문, 2002, 「신라 하대 흥륜사와 金堂十聖의 성격」 『新羅文化』 20, 동국
대신라문화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the account of Lee GyuBo's
journey in South region(南行月日記)
-especially examine about three Buddhist
monk, Boduk(普德), Wonhyo(元曉), Jinpyo(眞表)-**

Cho, Bup-Jong

Lee GyuBo's journey in south region(南行月日記) described Jeonju territory and include many ancient records about unique things and special buddhist monk.

His main interest is un-precedented phenomenon, so he watch with deep concern to unique things, especially Boduk(普德), Wonhyo(元曉), Jinpyo(眞表).

Boduk fled from his own country, Koguryo(高句麗) for religious persecution to Jeonju(全州) in Baekje(百濟) territory. His exile is by flying small Buddhist temple(飛來方丈), so it became know to miraculously thing. Then, Lee GyuBo visit that temple and write about that. When he visited to Beonsan(邊山), he seek for Wonhyobang(元曉房), which Wonhyo(元曉) and Sabok(蛇福) dwelling. Wonhyo(元曉) and Sabok(蛇福) stand as a symbol for the guidance of afterlife in Shilla(新羅). For this reason, I think that their presence in Beonsan connected to Baekje resistance.

He also went on a visit to Jinpyo(眞表)'s Buddhist hermitage, it named miraculous hermitage(不思議方丈). It posited very highly the edge of

precipice. so Lee GyuBo climb up a ladder. He also write about Jinpyo(眞表)'s portrait, and so on. In his write about three Buddhist monk, Boduk(普德), Wonhyo(元曉), Jinpyo(眞表) had unique record and described another points.

And he visited dolmen in Gumma(金馬) and decribed that it made by pre historical age people and it represent holy site.

So his writings are not only account of a trip but also historical record about Korean ancient history.

key words

Lee GyuBo's journey in South region(南行月日記), Boduk(普德), Wonhyo(元曉), Jinpyo(眞表), Sabok(蛇福), flying small Buddhist